'공간'과 '인간'으로 푸는 이색적인 지리이야기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이야기 세계 지리

최재희 지음

가수 더 클래식의 '마법의 성'이라는 노래가 있다. 마법의 성에 갇힌 공주를 그리는 노래는 신데렐라 성을 환기한다. 사실 신데렐라 성은 디즈니랜드의 랜드마크다. 이곳을 찾는 이들은 신데렐라 성에서 펼쳐지는 레이져 쇼를 관람하며 세계의 여정을 마친다.

아름다운 신데랄라 성은 중세 유럽의 다양한 성을 모티브로 지어졌다. 중세 유럽의 성들은 통치는 물론 방어, 거주에 용이하게 만들어졌는데 공통점은 주변을 조망할 수 있도록 높게 올려 지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성의 위치와 지리적 조건은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 에스파냐는 국토를 동서로 과다라마산맥이 가로지른다. 산맥을 기준으로 양쪽 산록대에는 주요 성곽과 저수지가 조성돼 있다. 만사나레스 엘 레알 성, 알카사르 성 등도 인근에 있는데 모두 주변 지역을 살필 수 있는 지리적 요충지다.

독일의 노이슈반슈타인 성도 알프스 산록대에 입지해 있다. 물론 퓌센과 포겐제 호수를 내려다 볼 수 있다. 산록대에 기댄 성은 방어면에서 용이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공간은 인간을 만들고 인간은 공간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공간을 보면 인간을 알고, 인간을 보면 공간을 알 수 있다는 말이다. 언급한 대로 성 또한 그러한 지리적 특성과 맞물려 특정한 공간에 들어섰다.

공간과 인간으로 푸는 지리 이야기를 담은 책이 발간됐다. '이야기 한국지리', '스포츠로 만나는 지리'의 저자이자 현직 교사인 최재희 씨가 펴낸 '이야기 세계 지리'는 모두 20개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저자는 땅과 인간의 상호작용 관계를 이해하면 무한한 상상여행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 상호작용 속에서 인간은 역사와 문화를 일궈왔다. 책은 '자연지리'와 '인간지리'라는 두 테마를 기조로 구성돼 있다.

'시대의 지성'이었던 고(故) 이어령 선생은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라고 말한 바 있다. 모든 생명이 피해갈 수 없는 운명을 말하는 것인데, 인류의 삶터인 땅도 예외는 아니다. "땅은 태어나 성장하다가 늙어 죽음에 이른다. 다만, 지질학적 시간이 걸릴 뿐이다"고 설명한다. 마치 얼굴의 주름살에서 대략 나이를 가늠하듯 땅에도 나이가 들어가는 패턴이 있다는 얘기다.

세계에서 가장 수심이 깊은 곳이 바이칼호로 수심이 무려 1700m이다. 저자는 땅의 갈라짐 관점에서 설명한다. 내륙 깊숙한 땅이 갈라진 것은 "유라시아판과 태평양판이 상호작용한 결과"라는 것. 지도를 펼쳐 한반도 함경산맥을 바이칼호의 방향과 대응하면 "북동-남서 방향으로 이어진 연속된 산줄기의 흐름을 발견할 수 있다"고 부연한다. 하나는 산맥, 하나는 호수로 남았는데 이는 땅이 힘의 방향을 따라 주름지는 과정에서 높낮이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미국 북동부 메갈로폴리스는 남북으로 약 970km에 걸쳐 있다. 메가로폴리스(megalopolis)는 그리스어로 '도시'를 의미하는 폴리스와 '거대하다'는 뜻의 메갈로의 합성어다. 미국 전체 면적의 50분의 1에 지나지 않지만 인구는 5분의 1을 차지한다. 보스톤, 뉴욕,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워싱턴 D.C.로 이어져 하나의 도시처럼 역할을 담당한다.

1602년 종교 박해를 피해 보스턴 인근에 도착한 100여 명의 청교도가 시초였다. 대항해 시대 이후 프랑스와 네덜란드, 영국이 점령했던 뉴욕은 미국이 독립해 수도를 삼으면서 성장했다. 오대호와 허드슨강을 잇는 운하가 연결되면서 뉴욕과 인근이 발달했다. 그렇다면 메갈로폴리스가 언제까지 성장하고 중심을 유지할까? 현재로선 단언할 수 없다.

이렇듯 저자는 지리적 범위를 다루면서 다양한 주제를 아우른다. 석회암과 퇴적암, 피오르와 삼각주 등의 자연현상부터 찰스 다윈 진화론의 지리적 배경까지 거론한다. 인간이 땅에 적응하며 저마다 역사를 일궈가는 모습은 한편의 거대한 파노라마라는 사실을 일깨운다.

〈살림·1만3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알프스 산록대에 입지해 방어와 주변 조망에 유리한 독일의 노이슈반타인 성. 〈살림 제공〉

부스러졌지만 파괴되진 않았어

김가을 지음

지난해 4월 편집자에게 한 통의 메일이 도착한다. "이런 글이 출판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해서 매일 드립니다. '안네의 일기' 식으로 피해자 쉼터에서 있었던 일과 과거의 특징적인 기억들을 적고 이를 연결한 글을 이어가려고 생각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맞으며 자라 23세 되던 해 폭력을 못 이겨 아빠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책 '부스러졌지만 파괴되진 않았어'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다. 대학에서 식품공학을 전공했지만 인문학 공부와 활동을 더 많이 했다. 소설을 좋아하며 책을 매개로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김가을 씨가 저자다. 22세부터 24세까지 쓴 글이 담긴 책은 '아버지폭력'에 맞선 한 여성의 용기와 희망을 다룬다.

작가는 아빠, 엄마, 여동생과 막내 남동생 다섯 식구다. 자영업을 하는 아빠, 일본 섬마을 출신의 엄마 사이에서 3남매 중 장녀다. 저자에 따르면 아빠의 폭력은 그가 대여섯 살 때부터 시작됐다. 작가는 차분하게 글을 써내려 간다.

아버지 폭력을 경험한 이들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다. 그들의 치명적이고 위험한 고통이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현실 바깥에 있기 때문이다. 이 고통을 말하는 것은 '금지'된다. 대부분 사람들은 '가족'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감옥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날카로운 창살은 없지만 그 너머의 보이지 않는 벽은 지극히 높기 때문이다.

추천사를 쓴 장강명 작가는 "이 기록과 고백은 내 영혼을 정화해주었다"며 "진짜 문학이 주는 뜨겁고 무서운 치유와 부활의 힘을 확인하게 해줬다"고 평했다.

〈천년의상상·1만6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스님, 고민이 있어요

등명 스님 지음

순천 선암사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천년고찰이다. 한국적 정서를 담고 있는 아름다운 절이다. 봄이면 피어나는 50여 그루의 홍매화와 꽃 잔치를 방불케 하는 벚꽃 등이 눈길을 오래도록 사로잡는다. 선암사에서 출가하고 수행한 등명 스님은 현재 템플스테이를 맡고 있다. 스님이 평화로운 마음에 이르는 길과 선암사의 아름다운 자연, 풍광 이야기를 담은 책을 펴냈다. '스님, 고민이 있어요'는 선암사를 찾은 사람들과의 차담과 템플스테이를 통해 주고받은 삶의 진정성을 담고 있다.

"그래, 매화 같은 사람이 되어야지. 매화나무처럼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스스로 봄을 일구어 꽃을 피우는 사람이 되어야지. 무른 그런 사람만이 매화처럼 그윽한 향기를 지닐 수 있나니…. 봄이 오면 누군들 꽃을 피우지 못하겠는가." 스님은 말한다. 매화는 봄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절대 오지 않는 것이라고. 대신에 "봄은 스스로 일구어야만 꽃을 피울 수 있다는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 곁에 머물러 있는지 모른다"고 일러준다.

책에는 템플스테이 참가자와 스님이 차담을 나누며 주고받은 사연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방향을 제시해준다. 사람들은 자연과 하나가 되는 템플스테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

특히 스님은 자연에서 깨달은 지혜가 삶을 살아갈,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준다고 덧붙인다. 인생길은 정면으로 돌파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비록 태산이 눈앞을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주저하지 말고 그 산을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진정한 인생의 봄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음의숲·1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보통날의 식탁

한솔 지음

도시는 편리하고 풍요롭지만, 때로는 우리를 불안하고 허기지게 만든다. 남들만큼 빠르게 살아내느라 꽃이 피는지 낙엽이 지는지 실감할 겨를도 없이 계절을 스쳐 보내고, 스스로를 먹이는 데 쓸 에너지조차 없어 배달음식과 밀키트로 식탁을 채우곤 한다. 몸과 마음이 헛헛해지는 이런 도시 생활에 지쳐, 작은 시골 마을에 둥지를 튼 전직 푸드스타일리스트이자 귀농인 한솔은 손수 가꾼 '하나밖에 없는 우주'에서 자신과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식탁을 차린다.

그는 최근 펴낸 '보통날의 식탁'에서 자연 속에서 제철 재료를 만나고 요리하는 이야기를 풀어내며 전원의 풍경과 함께 음식의 향연을 전한다. 도시 생활의 허기를 달래기 위해 그가 찾아간 곳은 충북의 작은 시골 마을 오생리다. 옹기종기 채소를 심어놓은 텃밭, 갖가지 꽃이 피어나는 산책 코스는 싱그러움을 자아낸다.

"내게 있어 쑥은 계절을 가늠하는 척도다. 쑥이 얼마나 자랐는지를 보면 봄의 농도가 파악된다. 이른 봄 손톱만 한 올리브색의 어린 새싹을 지나, 한봄에는 솜털이 옅어지고 짙은 녹색이 된다. 쑥이 질기고 거칠어져 먹기 곤란한 수준이 되면, 이제 계절은 여름 근처에 닿는다." 책 속에는 사계절이 눈부시게 펼쳐진다. 봄의 '냉이 장아찌'로 시작해서 여름의 '다슬기 장조림', 가을의 '콩 커리', 겨울의 '시래기 오일 파스타'까지 계절마다 펼쳐지는 제철 재료와 음식 이야기가 담겨있다.

책에는 오생리 못지않게 경남 합천에 있는 외갓집도 자주 등장한다. 고사리가 나고 밤이 열리는 산, 언제나 넉넉하게 품어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다 같이 모여 김장을 담그는 장면은 향수를 느끼게 한다.

〈티라미수 더북·1만7000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그린알로에
그린궁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宮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착색료 ★ 감미료 無 합성향료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